



“헌혈 동참합니다” 광주시 북구에 있는 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28일 오전 병원 앞에서 단체헌혈을 하고 있다. 에덴병원은 올해로 20년째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여름시즌에 임직원 단체 헌혈행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초등생도 가는 만화카페 사방이 ‘19禁’

### 광주 20~30곳 성업... 폭력·음란물 성인용 만화 비치 출입 제한·성인 인증 없이 어린 학생들 무제한 이용

광주에서 성업중인 만화카페를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방과 후 어린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인 만화책이 상당수 진열된 만화카페를 마음대로 드나드는데도, 출입 또는 열독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만화카페 업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에만 20~30곳의 만화카페가 운영 중이며 이들 가게 대부분이 성인용 만화를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곳은 사실상 단 한 군데도 없다.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출입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만화카페 대부분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나 미성년 고객에 대한 이용 안내문조차 없다.

다만, 일부 카페에 한해 성인물을 따로 모아놓고 책장에 19세 미만 대어·대본금지라는 문구를 적어놓는 곳이 고작이다.

이날 남구 봉선동 A만화카페엔 소설·순정만화·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비치돼 있었다. 이들 장르의 틈 속엔 성인만화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는데, 책장 사이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책장에서 성인물을 빼낸 뒤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나무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만

화카페 하루평균 이용객 수는 대략 70명. 방학 이후 초·중학생 이용객 수가 부쩍 늘었다는 게 업주의 설명이다.

내부엔 테이블형·토글형·좌식형 등 다양한 열독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성인 2~3명이 동시에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토글방’과 칸막이가 마련된 밀실에선 어린 학생들이나 홀로 살인 등 폭력적인 장면과 남녀 간의 노골적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

온라인상에선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곳에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성인물을 접하는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만화방들은 ‘성인만화책 코너’를 별도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 또 만화책을 읽거나 대어하려면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생겨난 만화카페는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나 별도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대개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는 손님들에게 이용요금(시간당 2000원~2400원)을 받는 게 거의 전부였다. 내부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어린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 A만화카페 주인은 “만화책 자체가 독자층의 연령대가 다양해 성인만화를 치우기는 어렵다”면서도 “방학기간에는 손님 중 절반이 미성년 손님들이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시키면 장사가 안 된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만화카페 출입금지보다 일부 성인물에 한해 청소년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만화카페 이용 시 학부모의 관리와 만화카페 직원들의 지도가 필요하다”며 “방학 기간에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찾아 이용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합영기자 young@kwangju.co.kr

## CCTV 폭로한 내부 고발자 징계하려다...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시민단체 반발에 상벌위 없던 일로

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CCTV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징계 하려다 취소했다.

28일 광주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오전 직원 A씨에 대한 인사·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A씨는 병원 측이 환자를 폭행한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를 했다. A씨의 폭로로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인멸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A씨가 인사규정에 따라 복무·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자 인사·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곧바로 위원회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시립제1요양병원과 이 병원을 운영 중인 인공의료재단 위탁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폭행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여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남용과 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

## ‘금남로공원’→‘금남로4·19공원’ 변경 추진

### 4·19 정신 계승...동구, 내일 지명위

광주시 동구가 4·19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3가에 자리한 ‘금남로공원’을 ‘금남로4·19공원’으로 지명변경을 추진한다.

금남로공원은 조선시대 금남군(鎭南君) 정충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로 명명된 도로명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2006년 준공할 때 ‘금남로공원’으로 명명했다.

올해 5월 광주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공원’을 ‘금남로4·19공원’으로 지명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동구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 지역 16개 주요 시민사회단체에 지명변경 관련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12개 단체가 찬성을, 4개

단체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동구는 30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지명위원회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면 공식적으로 지명변경이 확정된다.

한편 4·19혁명의 최초 발원지인 금남로에서는 3·15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보다 3시간여 앞서 ‘국민주주의의 장송(哭 民主主義 葬送)’ 의거가 일어났으며 4월 19일 당일에는 학생들의 행진에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전국4·19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2011년 금남로공원 내에 4·19혁명 진원지 표시석을 설치해 광주 4·19혁명의 최초 발원지를 알리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 “무등산으로 아토피 치료 오세요”

공원사무소, 내달 9·10일 템플스테이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다음 달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초등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무등산 중심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는 천연보습제 만들기, 산림지유, 명상, 예불, 참선, 차담 등

자연 속 체험활동으로 꾸려진다.

참가 대상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초등 4~6학년 학생과 동행이 가능한 학부모다.

30명 안팎을 모집하며 처방전 진료코드(L20) 등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궁금한 내용은 무등산동부사무소(061-370-5736~9)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해질 19:04    달출 13:01    달몰 23:45

**무더위 안녕~**  
오전에 흐리고 비온 후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22/29	보성	23/29
목포	23/28	순천	25/31
여수	25/30	영광	21/27
나주	21/29	진도	23/29
완도	25/29	전주	21/28
구례	23/30	군산	20/27
강진	24/29	남원	22/29
해남	23/29	홍산도	21/25
장성	20/27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1.0~2.5
	면바다	북서~북	2.0~4.0	북~북동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2:05	06:49
	---	19:37
여수	밀물	썰물
	07:10	01:04
	20:09	13:59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 주간 날씨

30(수)	31(목)	9/1(금)	2(토)	3(일)	4(월)	5(화)
☀️	☀️	☀️	☀️	☀️	☀️	☀️
18/26	19/28	17/29	19/28	19/28	19/28	21/28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DOWN, 학업 능력 UP!**

2학기 2차 신청!    9월 6일까지

대학생 여러분~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입생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8월 23일(수) 9시 ~ 9월 6일(수) 18시
- 신청대상: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8월 23일(수) 9시 ~ 9월 12일(화) 18시
- 신청문의: 1599-2000

www.kosaf.go.kr

교육부    한국장학재단